

진현환 1차관, “내년 예산안에 살기 좋은 지방시대 중점 지원”

- 16일 국토부-지자체 예산협의회...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지역 현안 소통 -

-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4월 16일(화) 오후 3시,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·도 부단체장과 함께 '25년 예산 편성을 위한 국토부-지자체 예산협의회'를 개최하였다.
 - 예산협의회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다.
- 진 차관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“고금리·고물가에 서민 체감경기가 여전히 어렵고,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균형 잡힌 국토 발전이 시급하다”고 평가하면서,
 - “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된 지역의 민생 과제를 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하겠다”라고 강조하였다.
- 이어 진 차관은 17개 시·도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“오늘 예산 협의회에서 논의한 160여 건의 건의사항은 '25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꼼꼼하게 검토하여 반영할 것”이라면서,
 - “국토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각오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2024. 4. 16.

국토교통부 대변인